

시론

시설 투자에 기대어온 관광 정책의 한계



정성민

단체대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의 지역 관광은 오랫동안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 있었다. 건물을 지으면 사람이 온다는 믿음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대한 건물을 짓고, 번듯한 진입로를 닦아 놓기만 하면 관광객이 알아서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 즉 '꿈의 구상 오류'다. 이는 1989년 동명의 영화에서 유래한 이 표현은 "메이저리그 구장만 지어만 놓으면 관중은 올 것이다(If you build it, he will come)"라는 환상을 풍자한다. 매력적인 콘텐츠나 치밀한 수요 예측 없이 물리적 공간만 조성해 두면 방문객은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라는 하드웨어 만능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다. 문제는 이 믿음이 아직도 정책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과 지방 도시에 우수축산 들어선 수백억 원 규모의 각종 '테마파크', '전통문화 체험관', '역사 복원 단지'들이 그 증거다. 개장식 날의 축포는 요란하지만, 불꽃이 사라진 뒤 남는 것은 적자와 관리비다. 화려했던 공간은 곧 지역 재정을 옥죄는 애물단지로 전락한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예술회관

들 역시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43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경북 안동의 유교랜드는 대표적 사례다. 개관 10년 차인 2023년, 한 해 운영비는 13억4천만 원에 달했지만 수입은 1억 원 남짓에 그쳤다. 건설은 성과였지만 운영은 속제였다. 이 현상은 단거리 건설 성과에만 집중한 채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결과다.

이 모습은 1990년대 일본 지자체들이 겪었던 '하코모노(箱物)' 행정의 실패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일본은 국가 교부금을 투입해 박물관과 전시관 같은 거대한 '상자'를 지었지만 콘텐츠와 운영 전략이 부재한 공간은 흥물로 남았다. 유바리시처럼 일부 지역은 재정 과탄으로 이어졌다. 스페인 역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성공을 표면적으로만 모방한 결과 랜드마크 건립 경쟁에 빠졌다. 그러나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한 대형 인프라는 막대한 적자만 남겼다. 발렌시아의 '예술과 과학의 도시'처럼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한 대규모 인프라는 무더기 적자와 함께 '빌바오 효과의 저주'라는 오명만 떠안았다. 외형은 모방할 수 있지만 생태계는 모방할 수 없다.

물리적 규모로 승부하던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 문제의 핵심은 공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문화자본'의 부재다. 오늘날의 여행자, 특히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대는 단순히 크고 새로 지은 건물을 보기 위해 이동하지 않는다. 그들이 비용과 시간을 지불하는 이유는

그 공간에서 경험하는 라이프스타일, 취향, 감각적 콘텐츠 때문이다.

낮고 허름한 공장이나 창고라도 감각적인 로컬 크리에이터의 손길이 닿아 매력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면 사람들은 열광하며 모여든다. 반면 수백억 원을 들인 최신식 인프라도 관광서식 기획과 무난한 프로그램에 머문다면 외면받는다. 하드웨어는 예산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안의 문화적 맥락과 일상의 뉘앙스는 돈으로 복제되지 않는다.

물리적 공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장소는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고유한 문화자본이 덧입혀질 때 비로소 '생성의 장소(Becoming place)'로 의미를 갖는다. 만들어지는 공간은 많지만 감동을 불러오는 살아있는 장소는 드물다. 따라서 이제 지역 관광 정책의 무게 중심은 '도목'에서 '사람과 콘텐츠'로 이동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를 짓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새로운 관광의 문법이다. 지자체는 예산을 텅 빈 건물을 올리는 데 쏟아붓기 보다는 그 공간을 채울 기획자와 청년 창업가, 로컬 크리에이터를 키우는 데 투자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또 하나의 상자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과 취향이 모여들어 관계를 맺어가는 장소를 만들 것인가? 지역 소멸을 넘어서는 관광의 미래는 이 선택에 달려 있다.

社說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차량 홀짝제 적극 동참을

정부의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이번 주 2부제(홀짝제)로 강화된다.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만 운행 가능하다. 공영주차장은 5부제다.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2조2천억원 규모의 전시 추경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경제와 국민이 입은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지침을 배포해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보다 엄한 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출퇴근 시간을 분산하며,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도 제안했다. 민간부문 5부제는 자율을 유지하며, 의무화 여부는 모든 여건을 종합 고려해 신중 검토할 방침이다.

지역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도 더 이상 머뭇거리길 여유가 없다. 광주시는 하반기 예정이었던 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보증을 상반기에 추가한다. 1천여개 수출입 기업 대상 긴급 경영안정·수출진흥자금 130억 원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농어민 포장재 구입비, 중소·수출업체 경영자금 지원 등 긴급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중동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앙·지방정부는 가능한 선제적 정책을 집중해야 하고 국민들은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어려움이 닥칠수록 뭉쳐야 하는 법이다. 해서 중앙정부 사재기 행위를 용납하지 못한다. 당국은 시장 교란에 엄중 조치하고 시민들도 적극 신고하는 등 건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할 때다. 경제가 위태롭다. 한 달을 넘어서 중동전쟁으로 초래된 유가 급등과 공급망 위기가 민생을 옥죄고 있다. 에너지 수급 차질에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고공행진 소비자물가 3% 상승 눈앞의 현실 될 수도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호남데이터팀이 발표한 '2026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0%, 2.1% 상승했다. 광주는 품목별로 고등어(17.4%), 쌀(15.2%), 돼지고기(11.9%)가 두자릿수를 기록, 강세를 보였다.

공업제품 중에서는 석유류가 급등했다. 경유는 16.2%, 휘발유는 7.8% 뛰었다. 전기·가스·수도 부문은 상승도와 도시가스 요금은 각각 7.7%, 0.5%, 서비스 분야에선 보험서비스료(14.9%)와 공동주택관리비(5.2%)가 꽤 많이 올랐다. 전남의 사정도 비슷하다. 쌀 14.4%, 돼지고기 12.3%, 국산 쇠고기 8.4% 등 육류 중심으로 농축수산물들이 고공행진했다. 공업제품은 경유(16.5%), 휘발유(7.1%) 등 유가 관련 으뜸품이 두드러졌다. 다만 채소·과일 등 신선식품 값이 내렸고, 설량·밀가루 출고가 인하로 가공품 상승세도 다소 둔화했다.

실제로 제과 정도를 반영하는 생활물가가 높은 수준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원재료 가격이

들썩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발언 여파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당초에 종전이나 협상 진전 메시지가 기대됐으나 향후 2-3주간 강도 높은 군사 대응을 언급하면서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 복합적 비상 사태에 처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다. 주식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다시 오일쇼크가 닥쳤다. 앞으로가 문제다. 물가를 계속 억누르긴 힘든 노릇이다. 3월에는 최고가격제의 상해 효과도 누렸다. 국민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4월의 시작과 함께 각종 지표에 대한 불안이 엄습하고 있다. 이전과 같은 돈으로 살 게 줄어 장바구니가 한층 가벼워졌다. 직접적인 수출 감소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 치솟는 국제유가의 영향이 좀 더 커지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3%대에 달할 것이라 예측이다.

자치칼럼

인생 최고의 가치, 봉사와 주민자치



서순복

봉사주자시민들 대표회장
조선대 법학과 명예교수

이런 시를 보았다. "누군가를 보듬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나무의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이 그렇고 텃밭의 상추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그렇다. 남을 위해 내 마음을 조금 내어준 나도 참으로 행복하다. 어머니는 늘 이런 행복이 제일이라고 하셨다."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 할 지라도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한 선행 소식은 마음을 훈훈하게 한다. 나 자신을 위해 제대로 살지도 못한 것 같지만, 때로 내가 아닌 남을 위해, 나아가서는 지역사회를 위한 작은 봉사로 마음 뿌듯한 소식을 접할 때다. 내가 아닌 이웃의 소중한 필요를 채우려고 오호려 자신의 존재의미가 충실히 진다.

무안 몽탄의 어느 마을에서는 귀촌한 분들이 훈련을 받고 집수리 봉사단이 돼 홀로된 노인분들의 새는 지붕이나 고장난 화장실 등에 자원봉사를 한다.

60이 넘으면 '꼰대' 아니면 '라떼'가 된다

는 우스개가 있다. 나이가 들면 말 수를 줄이라고 한다. 아무리 웅은 소리도 잔소리로 들리기 쉽기 때문이다. 나 때는 말이야, 왕년에 내가 어렸다고 해봐야 공허할 뿐이다. 지금은 100세 시대다. 재수 없으면 120세도 산다. 은퇴하고 정년하고 나서 살아갈 남은 시간이 많지도 너무 많다. 58년 개띠들. 아니 60-70대 분들은 돈 벌이 자식 키우고 집 마련하느라 뼈빠지게 일한 세대들이다.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 노후준비도 잘 못했다.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고 하지 않은가. 그래도 정년하고 나서도 돈 버느라 스트레스 받는 일은 하지 말라고 충고를 받는다.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하고 연 백만명 정도가 사회로 나온다 한다.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경륜을 갖춘 분들이 은퇴 후 집에만 있다는 것은 문제다. 등산도 한 두달이다. 내가 아닌 이웃, 나아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가 은퇴세대가 눈을 떠야 되지 않을까 한다. 나라와 사회와 지역이 지금까지 나를 키워온 것을 되돌려 갚아야 할 때이다. 필자도 정년을 하고보니 여러 생각이 든다. 은퇴하신 분들이 사회의 어른, 아니 선배 시민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내가 사는 마을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마음을 베푸심으로써, 이웃과 마을에 가치있는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직장에서 닦은 실력으로 재능 기부하고 또 배워서 남을 주면 보람은 배가 되지 않을까?

매슬로우의 욕구5단계설은 사회과학계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탁월한 통찰이었다. 생리적 욕구를 넘어 안전 요구, 관계욕구, 존중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 욕구를 최상위 욕구로 파악했다. 그런데 매슬로우는 인생 말년 완숙한경지에서 자신의 학설을 욕구 8단계설로 보완했다. 최상위 욕구로 그는 자기초월의 욕구(Transcendence Needs)를 들었다. 자신을 넘어 타인을 돕거나 인류에, 종교적 신념, 자연과의 일체감 등 더 큰 가치에 헌신하고자 하는 최상위 단계이다. 내가 아닌 남을 도울 때 자신이 더 채워진다. 돈은 아무리 많아도 죽을 때 갖고 가지 못한다. 이웃을 위한 봉사는 남는다.

박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술사, 술사 위에 봉사가 있다는 유머어린 유머가 있다. 인생 최고의 가치는 봉사가 아닌가라고 감히 말해 보고 싶다. 읍면동마다 주민자치 조직인 주민자치회 내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 마을을 위해 주민이 마을계획을 세우고 주민총회를 거쳐 마을의제를 정한다. 주민주권시대, 마을 주민자치를 위한 봉사, 어떨진가요? 은퇴정년하신 분들이 지역사회에 문제의식을 가진 선배시민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자기초월적 욕구를 충족하시는 모습을 그려본다.

기고

AI시대 대한민국 능력개발사업, 방향을 바꿔야 한다



김승대

남부대학교 기계소재공학과 교수

AI 시대 산업 경쟁력은 인재에 달려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AI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라 능력개발사업이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스마트공장 도입이 확대되면서 AI 기술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 자격, 산업 현장이 서로 분리되어 운영되면서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제 능력개발사업은 교육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첫째, 산업 수요 기반의 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역량이 교육과 자격 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과 자격, 취업이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자격으로 이어지고, 그 자격이 곧 취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AI 시대에 맞는 융합형 능력개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다양한 기술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넷째, 능력개발사업 운영도 유연해져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능력개발사업은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라 국가 인재 전략의 핵심이다. 어떤 인재를 길러내느냐에 따라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결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서 나온다. 능력개발사업의 방향을 지금 바로 바꿔야 한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월요시화

화양연화(花樣年華)

-김사인

모든 좋은 날들은 흘러가는 것 잃어버린 주홍 머리핀처럼 물리서는 저녁 바다처럼. 좋은 날들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처럼 새나가지 덧없다는 말처럼 덧없이, 속절없다는 말처럼이나 속절없이. 수염은 희끗해지고 짓궂은 시간은 눈가에 내려앉아 잡아당기지. 어느덧 모든 우리창엔 먼지가 앉지 흐릿해지지. 어디서 끈을 놓친 것일까. 아무도 우리를 맞닥겨주지 않지 어느날부터. 누구도 빛나는 눈으로 바라봐 주지 않지.

눈멀고 귀먹은 시간이 곧 오리니 겨울 숲처럼 더는 아무것도 애덤지 않은 시간이 다가오리니

잘가림 눈물겨운 날들이야.

작은 우산 속 어깨를 견고 꽃장화 탕탕 물장난 치며

슬픔 없는 나라로 너희는가서

철 모르는 오누인 듯 살아가거라.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거라.

-출처 : 『어린당나귀 곁에서』, 창비, 2015.

꽃처럼 빛나는 시절이 있었는지, 속절없이 흘러갈 존재가 되었는지 물어야 할까. 짓궂은 시간은 좋고 나쁜 것들, 빛나고 빛 잃은 것들을 함께 쓸어갈 테니, 우리의 쓸쓸한 영육을 겨울의 마음으로 밝고 지나갈 테니 물을 수 없다. 눈물겨운 날들이었으니, 슬픔을 슬픔으로 다독이고, 슬픔으로 아름다워질 수밖에.

『월요시화』 첫 글을 김사인 시인의 「화양연화(花樣年華)」를 골라 열었다. 사랑은 돌아보면 슬픔으로 차 있다. 너무 빨라, 목개살이 내느라 새순마다 슬픔이 함께 떠나고 있다는 걸 모른다. 슬픔에 빠지자는 것이 아니다. 어깨를 견고 오누이인 듯 살아가는 일을 조금 더 생각하자는 것. 그런 생각이 차올라 꽃으로 피어나는 시절을 만들어 보자는 것. 지금이 아니면 언제 생각하고 언제 손잡겠는가.

〈천세진 시인·웹진 <초록의자>주관〉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 업 본 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